

# 성경해석학

## 제 8 강

## 현대 적용과 구약 시대

역자: 이창배 (Ph.D., UCLA)

후원: 이유선 (Daughter)



thirdmill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 2013 b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for profit, except in brief quotations for the purposes of review, comment, or scholarship,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nc., 316 Live Oaks Blvd., Casselberry, Florida 32707.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l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Copyright © 1973, 1978, 1984, 2011 International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of Zondervan Bible Publishers.

### **ABOUT THIRDMILL**

Founded in 1997, Thirdmill is a non-profit Evangelical Christian ministry dedicated to providing:

####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Our goal is to offer free Christian education to hundreds of thousands of pastors and Christian leaders around the world who lack sufficient training for ministry. We are meeting this goal by producing and globally distributing an unparalleled multimedia seminary curriculum in English, Arabic, Mandarin, Russian, and Spanish. Our curriculum is also being translated into more than a dozen other languages through our partner ministries. The curriculum consists of graphic-driven videos, printed instruction, and internet resources. It is designed to be used by schools, groups, and individuals, both online and in learning communities.

Over the years, we have developed a highly cost-effective method of producing award-winning multimedia lessons of the finest content and quality. Our writers and editors are theologically-trained educators, our translators are theologically-astute native speakers of their target languages, and our lessons contain the insights of hundreds of respected seminary professors and pastors from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our graphic designers, illustrators, and producers adhere to the highest production standards using state-of-the-art equipment and techniques.

In order to accomplish our distribution goals, Thirdmill has forged strategic partnerships with churches, seminaries, Bible schools, missionaries, Christian broadcasters and satellite television providers, and other organizations. These relationships have already resulted in the distribution of countless video lessons to indigenous leaders, pastors, and seminary students. Our websites also serve as avenues of distribution and provide additional materials to supplement our lessons, including materials on how to start your own learning community.

Thirdmill is recognized by the IRS as a 501(c)(3) corporation. We depend on the generous, tax-deductible contributions of churches, foundations, businesses, and individual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ministry, and to learn how you can get involved, please visit [www.thirdmill.org](http://www.thirdmill.org).

# 성경해석학

## 제 8 강 현대 적용과 구약 시대

### 목차

### Contents

<b>I. 서론(Introduction)</b> .....	<b>1</b>
<b>II. 시대 구분(Epochal Divisions)</b> .....	<b>2</b>
A. 다양성(Variety)	3
B. 개요(Outline)	5
C. 함의(Implications)	7
<b>III. 시대적 발전(Epochal Developments)</b> .....	<b>11</b>
A. 인물(Characters)	11
B. 줄거리(Storyline)	14
C. 저자(Authors)	16
1. 과거에 관하여(About the Past)	17
2. 현재를 위하여(For the Present)	18
D. 연결 고리(Connections)	20
1. 배경(Backgrounds)	20
2. 모델(Models)	22
3. 예시(Anticipations)	25
<b>IV. 결론(Conclusion)</b> .....	<b>26</b>

# 성경해석학

## (He Gave Us Scripture: Foundations of Interpretation)

### 제 8 강 현대 적용과 구약 시대

#### (Modern Application and Old Testament Epochs)<sup>1</sup>

#### I. 서론(INTRODUCTION)

여러분은 기독교인들이 구약 성경을 현대 생활에 적용할 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한쪽 극단에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했던 것을 정확히 우리도 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있다. 또 다른 극단에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을 행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면, 진실은 이 두 극단 사이 어딘가에 있다.

구약 성경을 우리 시대에 적용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일을 기억해야 한다. 곧 우리는 결코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지만 결코 과거를 잊어서도 안 된다.

이번 강의는 **성경해석학** 강좌의 여덟 번째 강의로 그 제목은 “현대 적용과 구약 시대”이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구약의 신앙이 시대를 따라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발전이 우리 자신의 성경 적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할 것이다.

---

<sup>1</sup> Dr. Richard L. Pratt, Jr. (Host) is Co-Founder and President of Third Millennium Ministries. He served as Professor of Old Testament at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for more than 20 years and was chair of the Old Testament department. An ordained minister, Dr. Pratt travels extensively to evangelize and teach. He studied at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received his M.Div. from Union Theological Seminary, and earned his Th.D. in Old Testament Studies from Harvard University. Dr. Pratt is the general editor of the NIV Spirit of the Reformation Study Bible and a translator for the New Living Translation. He has also authored numerous articles and books, including Pray with Your Eyes Open, Every Thought Captive, Designed for Dignity, He Gave Us Stories, Commentary on 1 & 2 Chronicles and Commentary on 1 & 2 Corinthians.

이전 강의에서 우리는 성경의 원래 청중이 적어도 세 가지 점에서 현대 청중과 다르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원래 청중은 우리와 다른 역사적 시대에 살았다. 그들의 문화는 우리의 문화와 달랐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었다. 이 세 가지 차이점은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구약의 시대들에 집중하며 그것들이 현대 적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현대 적용과 구약 시대 사이의 연관성을 탐구할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구약 역사의 시대적 구분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이러한 구분이 나타내는 시대적 발전을 고찰할 것이다. 그럼 먼저 구약 역사의 시대적 구분에 대해 살펴보자.

## II. 시대 구분(EPOCHAL DIVISIONS)

구약 성경은 역사 전반에 걸쳐 일어난 많은 신학적 변화들을 기록하고 있다. 신학적 변화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개념과 행동과 감정에 대한 기대치를 바꾸실 때마다 일어났다. 그리고 그 변화가 의미심장했을 때, 그것은 시대적 구분을 식별하는 기초가 되었다.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변화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해 왔지만, 한 가지 보편적이고 유용한 예는 구약 신학을 성장하는 나무에 비유하는 것이다. 건강한 나무는 작은 씨앗에서 완전히 자랄 때까지 많은 변화를 겪는다. 그러나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무의 성장은 연간 기상 주기와 관련이 있다. 나무는 추운 계절에는 천천히 변화하고, 따뜻한 계절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구약 신학의 성장도 계절에 따라 변화했다. 때때로 그것은 상대적으로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때때로 그것은 극적으로 변화하여 새로운 성숙의 단계에 도달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숙의 단계들은 구약의 시대적 구분과 일치한다. 각 시대는 구약 신학에서 실질적이고 오래 지속된 전환으로 특징지어지는 기간이다.

우리는 구약의 시대 구분을 세 단계로 나누어 논의할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학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나누어 왔다는 점을 인정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많은 기독교 전통에서 사용하는 유용한 시대적 개요를 설명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이 개요가 성경의 현대적 적용에 주는

몇 가지 함의를 지적할 것이다. 그럼 먼저 학자들이 구약 역사를 구분해 온 다양한 방식을 살펴보자.

### A. 다양성(VARIETY)

신학자들이 구약의 역사를 구분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발견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선, 선명하게 구분되는 시대들 속에서 시간이 흐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대 간의 전환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고 시대들이 서로 겹치는 경우도 많다. 다음으로, 신학자들이 만드는 구분은 그들이 사용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과학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라. 고고학자들은 야금학의 발전에 따라 역사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초기, 중기, 후기 청동기 시대 그리고 초기, 중기, 후기 철기 시대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회학자들은 정치적 발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부족 국가 시대, 초기 국가 시대, 왕정 시대, 포로 시대, 포로 이후 시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학자들은 신학적 기준을 사용하여 시대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안에서 신학이 시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신학자들의 시대 구분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나무가 성장 단계를 거칠 때 여러 부분이 동시에 자라거나 동일한 속도로 자라지는 않는다. 때때로 질병은 다른 가지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실제로 한 가지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다. 나무 줄기의 껍질은 다소 느리고 눈에 띄지 않게 자라지만, 그에 비해 작은 가지와 잎은 빠르게 자랄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구약 성경 신학의 어떤 부분은 천천히 발전했고, 어떤 부분은 중간 속도로 진행되었고, 어떤 부분은 빠르게 변화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중 많은 부분이 서로 다른 시기에 성장했다. 이스라엘 신앙의 모든 측면이 같은 시기에 같은 속도로 변화했다면, 해석자들이 시대 구분에 있어서 의견 일치를 보는 것은 더 쉬웠을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신학자들은 구약의 역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나누어 왔다.

(스티븐 웰룸[Stephen J. Wellum] 박사)<sup>2</sup> 성경이 점진적인 계시로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 우리에게 전달된 계시라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개하시는 계획 중 정확히 어느 지점에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양한 시대(시기)로 나누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보여주는 많은 예들을 제시한다. 마태복음의 족보를 생각해 보라.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다윗을 지나 계속된다. 그것은 구약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로 나누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구약 역사를 나누어 그 독특한 중요성을 확인한 다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이다. 신약 성경이 구약의 역사를 나누는 다른 방식들도 있다. 로마서 5 장과 고린도전서 15 장에서 바울이 나누는 것을 생각해 보라. 여러분은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율법 이전과 율법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약 성경은 구약 시대를 나누는 여러 방법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고려해 보면서 나는 성경의 언약들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나누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아담(창조 언약), 노아[보존 언약], 아브라함(아브라함 언약), 모세(이스라엘과 관련된 옛 언약), 다윗[왕조 언약]을 거쳐 새 언약에 대한 기대에 이르기까지 살펴보면, 이것이 구속사가 전개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이며, 언약이 다음 언약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이르는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창세기에서 그리스도로 나아가는지, 하나님의 전체 경륜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 사고 방식이다. 실제로 신약 성경이 구약의 역사, 구속사에 대해 말하는 많은 방식은 이 언약적 패턴을 따른다.

---

<sup>2</sup> Dr. Stephen J. Wellum is Professor of Christian Theology at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구약 역사의 다양한 시대 구분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므로, 이제 많은 해석자들이 채택해온 한 가지 유용한 개요를 고찰해보자.

## B. 개요(OUTLINE)

구약의 역사를 구분하는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은 각 시대를 하나님의 언약들 중 하나와 연관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들은 항상 중요한 신학적 변화를 수반했기 때문에 시대 구분에 도움이 되는 경계를 제공한다.

많은 기독교 전통들이 구약에서 여섯 가지 주요한 하나님 언약을 식별한다. 그것들은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추방된 후에 올 것으로 예언한 새 언약이다.

아담과 관련하여 우리가 유의할 것은 창세기 1-3 장의 기록에서 우리가 보통 "언약"이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 단어 [브리트]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한다. 한 가지 예로, 창세기 6 장 18 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와의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다. 여기 "세우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קם]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에 대한 확인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언약적 관계로 제시했다고 확신할 수 있다. 또한 호세아 6 장 7 절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 또는 하나님과 아담으로 대표되는 전 인류 사이의 언약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다.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홍수 전에는 창세기 6 장 18 절에 나오고, 홍수 후에는 창세기 9 장 9-17 절에 나온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아내의 여종 하갈을 통해 후사를 구하기 전인 창세기 15 장 18 절과 하갈을 통해 후사를 구한 후인 창세기 17 장 2 절에 언급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기슭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출애굽기 19-24 장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용감한 레위 사람 비느하스와 맺으신 언약은 민수기 25 장 13 절에 언급되어 있다.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사무엘하 7 장과 시편 89 편, 132 편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31 장 31 절에서는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발견된다. 이 동일한 언약은 이사야서 54 장 10 절과 에스겔서 34 장 25 절에서 “평화의 언약”으로도 불린다. 그리고 누가복음 22 장 20 절과 히브리서 8 장 6-12 절과 같은 구절들은 이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 왔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준다.

이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강력하게 움직이셨던 시기를 나타내며, 오랫동안 지속된 신학적 강조점을 도입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 관계는 창조의 맥락에서 그리고 인간이 죄에 빠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초기 반응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섬김의 기초를 강조하고, 죄가 어떻게 이 섬김을 복잡하게 했는지 묘사했다. 그것은 또한 인간이 궁극적으로 이 섬김에 성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포함하고 있었다.

노아 시대에 인류가 세상을 끔찍하게 타락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홍수 심판을 내리셨다. 당연히 노아 언약은 죄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억제하고 하나님께 대한 원래의 섬김을 완수할 시간과 기회를 주기 위해 자연의 지속적인 안정성을 확립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했다.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인류를 인도할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선택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 언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신실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살이하던 데서 건져 내신 후에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셨다. 당연히 이 언약은 모세의 성문화된 국가법을 지향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지침이 되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의 가문을 이스라엘의 제국적 확장을 이끌 영원한 왕조로 확립했다. 이러한 확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측면이었다.

마지막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끝날 때 새 언약이 올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예언했다.

메시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온 세상에 전파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각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다양한 방식을 확립했으며, 그분의 신실한 백성에게 그분을 섬길 때 따라야 할 새로운 원칙을 제공했다.

지금까지 시대 구분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는 성경 역사가 구분되는 다양한 방식을 살펴보았고, 시대에 대한 유용한 개요를 제공했다. 이제 우리는 이 개요가 성경의 현대적 적용에 대해 갖는 몇 가지 함의를 살펴보려고 한다.

### C. 함의(IMPLICATIONS)

구약 성경을 여러 시대로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시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신학적 주제를 이해하고 적용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구약의 신자들이 역사적으로 마치 이전 시대에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처럼, 신약의 신자들도 역사적으로 이전 시대에 살았던 것처럼 성경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하나님 성전이 건축된 솔로몬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상상해 보라. 여러분은 다윗의 언약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 여러분은 이전의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모세의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도 안다. 여러분은 또한 여러분 자신의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다는 것도 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의 역사적 맥락에서 모세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 만일 여러분이 모세의 언약 아래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른 족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 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새로운 방법을 명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결코 옛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에서 구약의 제사라는 주제를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신약 성경이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이 이전의 모든 형태의 희생을 대체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을 그토록 강력하게 비난한 이유이다. 먼저, 그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 31 장에서 예언한 새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다고 주장했다. 그런 다음, 그는 새 언약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낡아지게 했다고 말했다. 그가 히브리서 8장 13 절에 기록한 내용을 들어보라.

**(히 8:13 개역개정)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매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새 언약의 도래로 옛 방식이 “낡아졌다(obsolete).”라고 말했다. 여기 사용된 헬라어 [팔라이오오]는 “오래되었다/구태의연하다(made old)” 혹은 “시대에 뒤떨어졌다(outdated).”로 번역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많은 선의의 기독교인들이 이 말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버리고 그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진실과 거리가 먼 것은 없다. 히브리서 자체는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 성경이 무관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으며 새 언약은 제사의 실행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옛 방식을 무시하지 않지만, 여전히 옛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눈에 띄는 또 다른 예는 전투에서의 리더십이라는 주제이다. 여러분이 다윗 왕조의 언약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그의 백성을 이끌고 악에 대항하는 전쟁에 나서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왕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여러분이 전쟁에 참여하는 방식을 지시한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다윗 왕을 좋아하지 않고 모세 국법의 언약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고 상상해 보라. 여러분은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드온과 같은 지역 사사, 여호수아와 같은 에브라임 사람, 혹은 모세와 같은 레위인을 따르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윗의 집 대신 이 중 한 사람을 따른다면 그것은 죄가 될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모세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언약

시대에 하나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지파의 족장을 따르는 것을 선호한다면, 여러분도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어느 시대에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해 세우신 군사적 리더십을 따라야 한다.

여기에는 현대 기독교인들도 포함된다. 새 언약 아래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윗의 위대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른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악의 세력에 대항하여 그의 백성을 이끌고 전쟁을 수행할 독점적인 권리를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재 우리의 전쟁 전략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 장 12 절에서 새 언약의 전쟁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라.

**(엡 6:12 개역개정)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은 모세와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물리적인 혈육의 전쟁을 벌이던 이전 시대의 전략과는 매우 다른 전략이다. 이 지도자들에게도 여전히 영적 전투가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영적 군대를 이끌지는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교회를 물리적인 싸움으로 이끌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정말 인도하신다. 만일 이 전략적 변화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바이즈[P. J. Buys] 박사)<sup>3</sup> 신약 성경은 주로 구약의 전투와 전쟁을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거대한 전투의 일부, 혹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려는 사탄 사이의 거대한 전투의 일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에베소서 6 장을 생각해보면, 동일한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오늘날의 기독교인에게도 여러분의 투쟁이 사탄의 악한 세력에 대항하는 것이고 이 전투에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sup>3</sup> Dr. P.J. Buys is Associate International Director of the World Reformed Fellowship and Adjunct Professor of Missiology Research at Northwest University in Potchesfroom, South Africa.

(마이크 글로도[Mike Glodo] 박사)<sup>4</sup> 신약의 저자들은 영적 전쟁과 국가적 전쟁에 대한 구약의 묘사를 특정한 방식으로 급진화하여 오늘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궤적으로 적용한다. 우선,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 오셨다. 요한복음 1 장은 그분이 어둠을 이기러 오셨다고 말한다. 문제는 어둠이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분은 어둠과 싸우셨다. 우리는 특히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용사로 오셨다. 사실 요한복음 12 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영광을 얻으실 때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며, 그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말씀하셨다. ...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 장에서처럼 우리의 전쟁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같은 것들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더 이상 지정학적인 국가적 전쟁이 아니며 기독교인들은 전쟁을 인식하는 방식에서 국가주의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것이다. ... 칼이 있고 십자가가 있는데, 인간으로서 우리의 경향은 십자가를 내려놓고 칼을 드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지상에서의 삶과 사역 전체에서 보여주신 자기희생적이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분의 백성이 자기들이 살던 언약 시대에 적합한 방식으로 그분을 섬기기를 기대하셨다. 따라서 구약의 역사가 어떻게 주요 언약 시대로 구분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데 필수적이다. 하나님께서 마치 역사를 진전시키지 않으신 것처럼 시계를

---

<sup>4</sup> Rev. Mike Glodo is Associate Professor of Biblical Studies at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in Orlando, Florida.

거꾸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언약 시대를 거쳐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학적 주제를 추적해야 한다.

지금까지 구약 성경의 시대 구분의 관점에서 구약 시대와 현대 적용을 고찰하였으므로, 이제 우리는 시대적 발전이 현대 적용에 어떤 영향을 주어야 하는지 탐구할 것이다.

### III. 시대적 발전(EPOCHAL DEVELOPMENTS)

시대적 발전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다시 한번 성장하는 나무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번에는 씨앗 사진과 그 씨앗에서 자란 나무 사진이 있다고 상상해 보라. 씨앗과 나무는 너무 달라서 서로 다른 시기의 같은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 둘은 같은 것이다. 씨앗과 나무는 발달 단계만 다를 뿐 완전히 동일한 유기체이다. 심지어 이를 증명하는 DNA의 유전자 구조도 동일하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초기 시대와 후기 시대 사이에는 수많은 신학적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것들의 근본적인 신학 구조, 곧 그것들의 DNA를 살펴보면, 이러한 신학적 변화들이 실제로는 하나의 성장하는 신앙의 유기적 발전을 반영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구약의 시대적 발전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이러한 발전의 배후에 있는 두 인물이 성경의 역사 전반에 걸쳐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각 시대가 통일된 줄거리로 다른 시대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구약의 저자들이 종종 이전의 시대를 후대의 청중에게 적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넷째로, 우리는 구약의 저자들이 이러한 적용을 위해 의존했던 시대들 사이의 몇 가지 연관성을 강조할 것이다. 그럼 먼저 성경 역사의 중심 인물들을 살펴보자.

#### A. 인물(C haracters)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 동일한 등장 인물들이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 사이에서 큰 갈등을 겪는다. 문학적 용어로 선의 세력은 이야기의 주역이나 주인공인 하나님 자신이 이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악의 세력은 적대자나 악당인 지극히 사악한 피조물인 사탄이 이끌고 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한다. 사탄은 매우 강력하고 영리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피조물에 불과하고 항상 창조주의 주권적 통제 아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드라마가 진행되는 동안 사탄이 그분을 대적하도록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하늘 궁전을 찬란한 영광으로 채우시는 최고의 창조주 왕이시다. 하늘에서 그를 섬기는 피조물들은 이미 그를 공경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영광을 온 땅으로 확장하심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로 결심해 오셨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국을 땅으로 확장하여 땅이 하늘처럼 되도록 계획하셨다. 그렇게 되면 땅 위와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이 그분께 끝없는 경배와 찬양을 드릴 것이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 일하는 무수한 영들을 사용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상 형상인 인간에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영광을 주셨다. 성경 전반에 걸쳐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이 그분의 영광을 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갈등의 반대편에서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되는 것을 저항한다. 사탄은 하나님의 왕국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저항하기 위해 많은 영과 인간을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이끌고 하나님의 영적 종들과 인간들과 갈등을 일으킨다. 그는 거짓말, 속임수, 거짓 종교, 타락한 인류의 죄악된 욕망에 호소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신의 대의를 위해 인간 동맹자를 얻는다.

(필립 라이켄[Philip Ryken] 박사)<sup>5</sup>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주인공이 등장하고, 그 주인공에 맞서는 사람이 있다. 이야기의 중심 인물인 주역이 있고 그 인물에 맞서는 적대자가 있다. 성경은 모든 이야기 중 가장 위대한 이야기이다. 따라서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된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마귀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무너뜨릴 후손이

---

<sup>5</sup> Dr. Philip Ryken is President of Wheaton College.

여자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 시점부터 마귀가 시시각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린 아이가 있을 때에도 마귀는 그 어린 아이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할 때 그들을 포로로 잡아 짓밟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은 그 이야기가 구약 전체에 걸쳐 계속해서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브라이언 비커스[Brian J. Vickers] 박사)<sup>6</sup> 구약 역사의 줄거리에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사탄이 적대자이다.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부터 이것을 볼 수 있다.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도록 유혹했다. ... 물론 타락한 이후에도 여인(하와)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벌어지는 지속적인 투쟁은 구약의 나머지 부분과 신약에 이르기까지 줄곧 언급되어 있다. 물론 이것은 마귀를 부끄럽게 하시고 마귀를 단번에 물리치신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됨으로써 마침내 절정에 이른다. ... 나는 여러분이 구약에서 시간이 지나가며 그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적들이라고 일반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뱀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고, 그분의 백성과 전쟁을 벌이고, 그분의 백성을 억압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구약 전반에 걸쳐 그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블레셋과 전쟁할 때 그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대결 그 이상이다. 나는 그 배후에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진행 중인 일종의 전쟁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종종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투쟁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

<sup>6</sup> **Dr. Brian J. Vickers** is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at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and Assistant Editor of The Southern Baptist Journal of Theology.



경험적 세계가 하나님과 그를 섬기는 영들, 그리고 사탄과 그를 섬기는 영들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 거의 인식하지 못한 채 성경을 접한다. 그러나 성경의 원래 청중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었다. 그들은 이미 영적 현실과 경험적 현실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고 있었다. 사실 이러한 믿음은 고대 세계에서 너무나 흔했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은 이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제공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러므로 현대인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 갈등의 관점에서 성경의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면, 성경의 원래 청중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즉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의 기저에 이러한 갈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성경의 중심 인물들을 염두에 두고 구약의 시대적 발전의 두 번째 측면, 곧 성경의 기본적인 줄거리를 살펴보자.

## **B. 줄거리(STORYLINE)**

언약의 시대들 사이에는 수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차이는 하나님과 사탄의 갈등에 대한 통일되고 포괄적인 이야기 안에 들어맞는다. 편의상, 우리는 성경의 언약 시대들을 성경 이야기의 주요 장들로 다룰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끝없는 찬양을 받으시려고 자신의 영광을 펼치고 계신다.

이 드라마는 제 1 장인 아담의 언약 시대로부터 시작된다. 제 1 장의 서두에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가시적 영광이 처음으로 지상에 나타난 한 장소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궁전 역할을 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에 따라 아담과 하와에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함으로써 거룩한 동산의 경계를 확장해야 할 사명을 주셨다. 그 목표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시적 임재를 드러내실 수 있는 적합한 장소로 바꾸는 것이었다.

물론 사탄은 이 계획에 저항하며 최초의 인간들을 유혹하여 하나님께 반역하게 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을 저주하시고 인간의 임무를 힘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인류가 이 시점부터 서로 경쟁하는 두 세력으로 갈라질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이 두 세력 중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사람들로 구성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사탄의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로 구성될 것이다. 동시에

하나님께서서는 여자의 후손이 결국 사탄과 그 후손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구약의 나머지 언약 시대들은 성경 줄거리의 본체를 이룬다. 제 2 장인 노아의 언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따라가면서 인류가 저지른 끔찍한 폭력의 땅을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자의 후손 중 남은 자손인 노아와 그 가족을 구출하시고, 인간들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때 더 이상 홍수가 온 땅을 멸하지 못할 안정된 세상을 세우셨다.

제 3 장인 아브라함 언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의 일부로 아브라함의 가족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사람들을 인도하며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과 충돌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지리적 출발점에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에 대한 모든 반대를 극복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온 땅을 상속받고 땅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할 것이다.

제 4 장인 모세의 언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애굽인들과 그들의 사탄적 신들을 물리치는 큰 승리를 주셨다. 또한 그분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율법에 따라 통치하는 나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이 섬기는 사탄의 영들을 물리치는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그리하여 그분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번영하게 하셨으며, 온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해야 할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셨다.

제 5 장인 다윗의 언약 시대에 다윗의 가문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사탄을 섬기는 나라들과 더 많은 갈등을 일으키도록 임명되었다. 다윗 왕조는 가나안에 안정을 가져왔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부응하여 이스라엘의 국경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갔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국외로 추방하셨다. 유배 기간 동안 그들은 외국 제국과 그들의 신들의 폭정에 시달렸다. 결국 하나님은 유배를 끝내시고 소수의 남은 자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셔서 그들이 가나안에서 왕국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나 그 남은 자들조차도 신실하지 못하므로 유배가 악의 폭정 아래 지속되었다.

구약 성경에 언급된 마지막 장[제 6 장]은 절정의 새 언약 시대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다윗의 위대한 아들인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속죄할 때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다. 메시아께서는 사탄과 악령들과 그들을 섬기는 나라들을 상대로 이스라엘을 최후의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 메시아께서는 사탄을 박살내시고 사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결국 메시아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땅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만물을 가득 채우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끝없이 찬양할 것이다.

성경 이야기에 대한 이 요약은 구약의 언약 시대들 사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들이 긴 이야기의 장들처럼 서로를 기반으로 하며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역사의 각 단계는 서로 모순되거나 서로 대체되거나 심지어 서로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발전하는 통일된 이야기에 누적적으로 기여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 성경의 시대적 발전 배후에 있는 중심 인물들을 고찰하고 각 시대가 통일된 이야기의 줄거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구약의 저자들이 자주 이전의 시대들을 후대의 청중에게 적용했다는 사실을 살펴볼 것이다.

### C. 저자(AUTHORS)

여러분은 이번 강의의 첫머리에서 구약 성경의 적용에 대해 “결코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지만 결코 과거를 잊어서도 안 된다.”라고 요약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과거에 살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 시대에 살았던 것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느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포함하는 이야기의 일부이다. 그리고 구약의 저자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일한 참 종교를 통해 자신을 계시해 오셨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들이 시간이 흘러도 계속해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할 것임을 의미했다. 이런 관점에서 구약의 저자들은 과거로부터 배운 것을 정기적으로 자신의 시대에 적용했다. 이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라. 구약에는 여섯 가지 주요 언약 시대가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더 이른 세 시대들, 곧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의 시대에 대한 정보는 모두 더 늦은 시대들, 곧 모세와 다윗과 새 언약의 시대에 쓰인 성경의 책들에서 나온 것이다.

구약의 저자들이 시대적 발전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드러내기 위해 저술에 포함시킨 두 가지 공통 요소를 살펴볼 것이다. 첫째로, 구약의 저자들은 과거에 관하여 기록했다. 둘째로, 우리는 그들이 현재를 위해 기록했다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시대, 그들 자신의 현재에 살고 있던 청중을 위해 글을 썼다. 그럼 먼저 구약의 저자들이 과거에 관하여 기록했다는 사실을 살펴보자.

### 1. 과거에 관하여(About the Past)

구약의 모든 책은 명시적으로 과거를 주로 다루고 있다. 모세 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생각해 보라. 모세는 그의 언약 시대에 이 모든 책을 기록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그는 먼 과거, 즉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의 언약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고하였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그는 자기 시대를 넘어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그는 그 책들이 기록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집중했다.

구약의 나머지 책들은 다윗 언약의 시대에 기록되었다. 그 책들 역시 청중을 과거로 데려갔다. 예를 들어, 욥기는 다윗 왕정의 시대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욥기는 왕정 시대보다 훨씬 이전인 아브라함 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는 다윗 언약의 시대에 기록되었지만, 그것들은 모세 시대의 말기, 곧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사무엘서,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는 주로 청중에게 최근의 과거 사건들을 언급했다. 이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에도 해당된다. 선지자들은 처음에는 예언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 사역했고, 나중에야 동시대의 청중을 확대하기 위해 그들의 사역을 기록했다. 따라서 그들의 책들은 대부분 이미 전달된 예언적 행동과 말에 대한 기록이었다. 마찬가지로 잠언, 아가, 전도서 역시 최근의 과거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었다.

구약의 저자들이 과거에 관하여 기록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이 현재를 위해, 곧 그들 자신의 동시대 청중을 위해 기록했다는 사실을 살펴보자.

## 2. 현재를 위하여(For the Present)

(가산 칼라프[Ghassan Khalaf] 박사)<sup>7</sup>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을 때 ... 그들은 독자들 곧 자기 백성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록했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글쓰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앉아서 글을 쓴 것이 아니다. 대신, 그들은 학습, 안내 및 구조에 대한 자기 백성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글을 썼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에는 의도된 목적이 있었다. 영감은 단지 “앉아서 글을 쓰는 것”의 문제가 아니었다. 아니, 문제는 “일어나 기록하라.”는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저자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자기 백성의 필요를 고려했다.

(지미 아간[Jimmy Agan] 박사)<sup>8</sup> 성경의 저자들은 자신의 청중의 상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글을 썼다. 우리는 거기에 너무 열광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성경책들이 원래의 상황에 너무 맞추어져 있어서 이후의 독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15 장 4 절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저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청중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 예를 들어, 창세기는 이제 막 애굽을 떠난 사람들에게 기록되었다.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화나게 만들었다. 그들은 다른

---

<sup>7</sup> Dr. Ghassan Khalaf is Professor of Biblical Studies at Arab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in Mansourieh El Maten, Lebanon.

<sup>8</sup> Dr. Jimmy Agan is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and Director of Homiletics at Covenant Theological Seminary.

적들과 싸워야 하는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로 시작한다. 여기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 족장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분으로 묘사된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 이처럼 우리가 원래 청중의 상황을 알게 되면,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이유를 아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어디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후 광야에서 겪은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가? ...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어떻게 우리의 궁핍을 불쌍히 여기시는지 깨닫기 시작한다.

성경의 저자들은 과거가 성경 신앙의 유기적인 발전의 초기 단계를 나타낸다고 이해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보다도 그들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중을 위해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원래 청중의 삶에 다리를 놓는 방식으로 과거에 관하여 기록했다. 그들은 역사적 인물, 행동, 말, 제도 등을 부각시키며 이러한 역사적 주제를 청중의 삶과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글을 썼다. 대부분의 경우, 구약의 원래 청중은 저자들이 이러한 다리를 놓기 위해 따랐던 문학적 관례에 익숙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연결 고리들을 설명하는 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저자들이 과거와 현재의 연결 고리를 가리키는 작은 단서를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더 나아가, 저자들이 청중에게 과거가 현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기 위해 직접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구약의 저자들이 과거를 자신의 동시대 청중과 연결하는 방법을 찾았던 것처럼, 현대의 기독교인들도 과거에 관한 기록을 우리 자신과 연결해야 한다. 그렇다. 현대의 적용은 우리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항상 과거의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현대 세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계시하셨던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우리는 과거를 다룬 구약의

책들을 현대에 적용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의 책들을 적용할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를 바라보고 있다. 요한계시록과 같은 일부 책들은 미래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조차도 그 저자 요한이 과거에 그의 원래 청중에게 적용했던 환상에 대한 기록이다. 어떤 식으로든 성경의 모든 책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성경 책들을 현대 세계에 적용하려면 우리도 과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대적 발전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구약 성경의 시대적 발전 배후에 있는 중심 인물들, 성경의 통일된 이야기의 즐거이, 구약의 저자들이 이전 시대를 자신의 동시대 청중에게 적용했다는 사실을 다루었다. 이제 우리는 성경 저자들이 과거와 현재 사이를 잇는 연결 고리의 유형들에 집중할 것이다.

#### **D. 연결 고리(CONNECTIONS)**

우리는 구약의 저자들이 과거와 현재 사이를 잇는 연결 고리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첫째로, 그들은 청중에게 신앙의 다양한 차원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제공했다. 둘째로, 그들은 청중이 모방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 셋째로, 그들은 청중의 경험에 대한 예시를 제시했다. 그럼 먼저 성경 저자들이 어떻게 청중에게 역사적 배경을 제공했는지 살펴보자.

##### **1. 배경(Backgrounds)**

구약의 저자들은 청중의 현재 경험의 배경이나 기원을 설명함으로써 과거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예를 들어, 모세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설명한 후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이 사건을 청중과 직접 연결하는 설명을 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모세의 말을 들어보라.

**(창 2:24 개역개정)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구절에서 모세는 아담 언약 시대의 한 특징이 모세 시대의 청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결혼의 영원한 규례를 확립한 것으로, 그것은 모세 시대까지 이어졌다.

모세가 이 사건을 원래 청중을 위한 배경으로 사용한 것을 보면,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우리 자신과 연결할 수 있다.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배경이었고, 우리 시대의 결혼 배경이기도 하다.

성경 저자들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 또는 불승인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배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롯기는 롯, 나오미, 보아스가 흠잡을 데가 없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롯기 4 장 21-22 절에 나오는 책을 마무리하는 족보를 들어보라.

**( 롯 4:21-22 개역개정) 21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22 오벳은 이새를 낳고<sup>9</sup>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족보는 보아스가 다윗 왕의 직계 조상임을 보여준다. 이 결말은 모세 시대의 사건을 다윗의 언약 시대에 살고 있었던 원래 청중의 시대와 연결시킨다.

다윗이 모압 여인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 왕권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롯의 이야기는 롯이 이스라엘에 편입된 것이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롯을 전적으로 승인하셨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롯기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었음을 뒷받침하는 배경을 제공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현대적 적용에서 우리는 롯기의 저자가 원래 청중을 위해 구축한 다리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롯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이 다윗 시대에 다윗 왕조의 정당성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것은 또한 우리 시대에 다윗의 위대한 자손이신 예수님의 왕권을 정당화하는 배경을 제공한다.

---

<sup>9</sup> [역자 주] 롯 4:18-22 에 9 번 나오는 [홀리드]에 대해 ESV 는 일관되게 “fathered”라고 번역했다. 개역은 9 번 모두 과거형 “낳았고 ... 낳았더라”로 통일해서 번역했지만 개역개정은 2 번(4 장 18 절과 22 절에서)은 “낳고”를 쓰고 개역처럼 나머지 7 번은 “낳았고 ... 낳았더라”고 번역했다. 새번역은 처음 8 번은 “낳고”로 번역하고 마지막은 “낳았다”로 번역했다. 개역개정이 개역이나 새번역처럼 일관되게 번역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저자들이 과거와 현재 사이를 잇는 연결 고리들에는 배경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원래 청중이 모방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는 것도 있었다.

## 2. 모델(Models)

(필립 라이켄[Philip Ryken] 박사) 때때로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읽다가 이렇게 자문해 보는 때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좋은 예인가, 아니면 나쁜 예인가? 나는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것과는 다른 일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구절마다 다를 수 있지만, 성경의 많은 이야기에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다. 나는 이 원리를 결과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이야기의 끝을 보고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곧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보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종종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나쁜 모범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내는 데 필요한 모든 단서이다.

여호수아서는 다윗 시대에 살고 있던 원래 청중을 위해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모델을 살펴보려고 한다. 여호수아서 저자가 2-6 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여리고 전투에서 보여준 긍정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7 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아이 전투에서 보여준 부정적인 모델을 제시한다.

여리고 전투에 관한 긴 기록에는 여호수아나 그의 정탐꾼들, 또는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는 암시가 전혀 없다. 그들은 여리고에서 몇 마일 떨어진 길갈에서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보였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여호수아-전군-나팔 부는 제사장들-언약궤를 멘 제사장들-후군을 따라 6 일 동안 성읍을 한 번씩 돌았고 일곱째 날 일곱 번 성읍을 돌았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크게 소리질러 외쳤다. 그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저자는 여호수아 6 장 27 절에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말로 여리고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수 6:27 개역개정)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나 아이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7 장 1 절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들어보라.

**(수 7:1 개역개정)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여리고 전투에서 보인 긍정적 모델과 이스라엘이 아이 전투에서 보인 부정적 모델을 대비시킨다.

이스라엘이 처음 작은 도시 아이 성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 대군이 패배한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 아간이 전쟁의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여리고에서 전리품 물건을 훔쳤기 때문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과 대면하여 죄를 회개하고 아간과 그의 가족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린 후에야 비로소 아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여리고 전투와 아이 전투 사이의 대조는 여호수아서 독자들에게 따라야 할 긍정적인 모델과 거부해야 할 부정적인 모델을 제공했다. 다윗 시대의 독자들은 이러한 모델들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왕을 따라 전투에 임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물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더 이상 여호수아처럼 물리적인 전쟁을 벌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적 적용에 있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올바른 방법을 배우기 위해 이와 동일한 긍정적 모델과 부정적 모델의 다리를 확장한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여리고에서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고, 아이에서 아간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러한 광범위한 현대적 적용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무수히 많다. 그러나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원래 청중에게 끌어들이는 연결 고리는 우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

(앤드류 데이비스[Andrew Davis] 박사)<sup>10</sup>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한 삶이 어떤 것인지, 죄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친다. 때때로 성경은 “너는 하라, 너는 하지 말라. 혹은 너희는 하라, 너희는 하지 말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말한다. 때때로 성경은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살았던 실제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한다. 이 경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들의 모범을 통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로마서(15:4)에서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본받아야 할 긍정적인 예도 갖고 있고, 피해야 할 부정적인 예도 갖고 있다. ...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단이 그에게 범죄하였다고 정죄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다윗의 죄를 암시하는 다른 증거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본보기였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나쁜 본보기라는 것을 알고 있다. ...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차이점을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 분명한 가르침, 교훈이 주어지고 그것이 실행되면, 그 둘은 합쳐질 수 있다.

샌더스 윌슨[Sanders L. Willson] 박사)<sup>11</sup> 알다시피, 성경을 보면서 어떤 인물의 성격이나 삶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한 것인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

<sup>10</sup> **Dr. Andrew Davis** is Senior Pastor at First Baptist Church of Durham, NC and is Visiting Professor of Historical Theology at Southea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sup>11</sup> **Dr. Sanders L. Willson** is Senior Minister at Second Presbyterian Church in Memphis, TN and serves on the boards of The Gospel Coalition, Union University and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분만이 우리의 비평에서 완전히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매우 주의 깊게 조사해야 한다. 그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그들이 일차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그러나 언제 본받을 만한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그럴 수 없는지를 파악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문맥을 살피고, 그 행동에 대하여 말한 것을 살피며, 그 행동의 결과, 즉 그것이 왕국 확장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주로 성경에 있는 도덕적 교훈을 보고 거기서 판단을 해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공정한 게임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이 선하고 참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안다. 다른 모든 사람은 성경의 도덕률의 현미경 아래 놓이게 된다.

마지막으로, 구약의 저자들은 배경과 모델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원래 청중 자신의 경험에 대한 예시를 포함시킴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연결했다.

### 3. 예시(Anticipations)

성경의 저자들은 과거에 관하여 기록할 때 자주 과거의 사건들이 그들의 청중이 직면한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다리는 “예표, 예시(foreshadowing)”라고 불리는 문학적 장치와 비슷하다. 예표에 있어서 저자는 이야기의 이전 세부 사항을 이후 세부 사항을 기대하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성경 저자들도 때때로 비슷한 의도를 가지고 과거에 관하여 기록했다. 그들은 독자들의 경험을 예시하는 방식으로 과거 사건들에 관하여 기록했다.

한 가지 잘 알려진 예시는 모세가 창세기 12 장 10-20 절에 기록한 아브라함의 애굽 체류에 대한 이야기에 나온다. 물론 모세는 아브라함 시대에 일어난 일을 사실대로 말했지만, 원래 청중이 아브라함과 그들 자신 사이의 많은 유사점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설명했다. 예를 들어, 모세의 원래 독자들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갔다. 모세 시대에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당하게 노예로 붙잡았던 것과 유사하게, 바로는 사라를 자신의 하렘으로 데려감으로써 아브라함을 부당하게 애굽에 붙잡았다.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보내 아브라함을 구원하셨고, 모세 시대에는 애굽과 바로의 집에 재앙을 보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바로는 아브라함을 큰 재물과 함께 떠나보냈고, 모세 시대의 출애굽에서 바로와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재물과 함께 떠나보냈다.

모세는 이러한 유사점들을 묘사함으로써 아브라함의 경험이 원래 독자들의 경험을 예시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모세는 원래 독자들이 애굽의 체류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벗어나 그들의 구원을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강하신 행위로 보도록 격려하고 싶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대적 적용에서 우리의 임무는 모세가 아브라함의 삶에서 원래 청중에게 세운 다리를 보고, 그 다리를 현대의 우리 삶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약 성경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이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악의 폭정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유사성을 통해 아브라함의 애굽 체류는 또한 현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봉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미리 보여준다.

성경을 적용할 때마다 우리는 성경 시대와 우리 시대 사이에 일어난 시대적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구약의 저자들이 배경, 모델, 예시를 통해 잇는 연결 고리는 이러한 역사적 시대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되는 패턴을 제공한다.

#### **IV. 결론(CONCLUSION)**

현대 적용과 구약 시대에 대한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구약 역사의 시대적 구분에 대하여 그 다양성, 시대들의 공통된 개요, 그리고 시대 구분이 주는 함의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구분된 시대들의 발전에 대하여 그 일관된 인물들, 통일된 이야기 줄거리, 성경 저자들의 이전 시대 사용, 그리고 우리의 적용을 돕는 시대 간의 연결 고리들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의 역사를 신학적 지향점이 다른 주요 시대로 나누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가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신학적 주제가 한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유기적으로 발전한 방식을 고려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전 언약 시대에 계시하신 모든 것이 우리 시대, 곧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을 알게 된다.